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37: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서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초립동 다윗을 선택하시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많은 약점과 인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을 뿐 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에서 오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칭찬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봄으로
피차 은혜가 되고자 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바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 37편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37:4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소원보다도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생활의 비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거꾸로
시편 37:4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그러면 먼저

1.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한 가지 이상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 어떤 사람은 낚시, 어떤 사람은 여행을, 어떤 사람은 공부, 독서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지루해 하지 않습니다. 밥을 안 먹고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 일은 하며, 어려워도 핑계대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사람은 즐거워 하며 행복해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 하는 일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식을 키워 보신 분들이니까 저의 이 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여도 아까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까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여도 아까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희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 희생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희생이
기쁜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를 기뻐하게 된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길

하박국 3: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3:18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크고
완전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4: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했는가, 공부를 해
보십시오.**

사무엘 하 6장에는 다윗왕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일입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오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이 삼하 6:12-15에는,

사무엘하 6:12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벰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벰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사무엘하 6:13 **여호와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하 6:14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 에봇을 입었더라

사무엘하 6: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채를 꿰어 궤를 메어 옮기고, 여섯 걸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용어로는 군악대가 보무도 당당하게 연주하며 가는 것입니다.

길가에는 경향 가지에서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렬의 맨 앞에서 다윗 왕은 춤을 추면서 그 앞을 가고 있습니다. 일국의 왕이,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쁨의 춤을 추면서 앞장 서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쫓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춤을 추면서 앞장 서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니 너무 기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왕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 왕의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 가를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가를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을 얼마나 기뻐 하셨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먼저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먼저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호와를 가장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는 큰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큰 선물을 받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것이 여호와 자신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1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상급으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서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다 희생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그분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쁨이 더 넘칩니다.

귀한 선물을 넘치게 받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 37편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37:4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의 소원은 무엇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기뻐합니다.

여러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신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의 죽음 까지도 마다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입니까?

시편 16:10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11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10-11절은 다윗의 시로써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합니다(행 2:27-31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이 구절은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나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앉을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앞의 히브리서 와 시편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앉을 그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림도 아까워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죽음을 앞 놓고도,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죽은 후에 가지셨습니까?

살았을 때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죽기 전에 바로 가지셨습니까?

아니요. 전일생에서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는 우리도 우리 전일생에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전에 신바람 건강학이라는 것이 있어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하며 웃으며 살라고 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데는 능력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10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는 것은, 즐거워 할 때
즐거워하고, 울 때는 울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보면 때론 슬픔이 너무 커서 슬픔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는 말은 이럴 때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슬픔과 근심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이기면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5:40 저희가 옹계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행전 5: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으로 때리고, 죽인다고 공갈 협박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능욕을 기쁘게 여겼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을 받으니 오히려 영광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런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접치는 귀신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 내어 그 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여 심히 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24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억울하게 매맞고 차고에 채여 습기차고, 냄새나는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25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26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 밤중이되어 바울과 실라는 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러자 홀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미하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 한 것은, 즐거울 때 웃고 슬플 때 웃는 그런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언제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기쁨과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hall-mark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가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모든 소원을 다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8:7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의 신앙 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고백은 진실되고 살아 있습니다.

이런 삶이 신앙 생활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